

한국 전통 인공물문을 활용한 넥타이 디자인

한 지 은 · 정 성 혜*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강사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교수*

요 약

현재 남성 패션 시장의 규모는 지속해서 커지고 있으며, 그중 넥타이는 대표적 남성 액세서리로 세계적으로 시장의 규모가 크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한류가 고조되면서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전통문화를 활용한 남성 액세서리의 시장은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적 트렌드에 발맞추어 면세점,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한국 전통문을 활용한 넥타이 디자인을 제시하여 패션 한류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한국의 전통 문양에 대한 사전 고찰과 자료를 수집하고, 넥타이의 역사에 대해 살펴본 후, 넥타이의 문양 중심으로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세계적인 넥타이의 트렌드를 이끄는 대표 브랜드인 에르메스와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2020년도의 넥타이 트렌드를 살펴보았을 때 넥타이의 문양은 인공물문을 활용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으며, 모티프의 배열은 울오버형과 사선형, 그물형, 가로선형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집된 250여 점의 전통 인공물문 자료 가운데 칠보문, 고리금문, 꽃살문, 도자기의 이미지 최종 9점의 인공물문을 선별하고 활용하여 모티프의 상징성을 담아 모던한 넥타이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디자인마다 3배수 이상의 색상을 조합하여 샘플 제작을 하였으며, 3명의 전문가가 상품성과 트렌드에 맞으며,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이 드러나는 제품을 선택하여 최종 6종, 21점의 넥타이를 디자인의 특성에 따라 실크스크린과 자카드로 제작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한국의 전통무늬에 대해 고찰하고 현대적이면서 고급화된 문화상품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가치에 대해 재조명하고자 하였으며, 한국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좀 더 가까이에서 세계적으로 향유되어 한류의 패션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고자 하였다.

주제어 : 넥타이 디자인, 전통 인공물문, 패션문화상품

본 논문은 인하대학교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교신저자: 정성혜, shjung@inha.ac.kr

접수일: 2020년 10월 29일, 수정논문접수일: 2020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20년 11월 30일

I. 서론

최근 남성들은 기존의 보수적인 소비방식에서 벗어나 의복을 통한 자기표현을 중시하고 있다. 이들은 외모 가꾸기를 중시하며, 피부 관리나 패션, 헤어스타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형을 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성향을 보인다. 이들을 일컫는 용어로 등장한 그루밍족은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다(Naver dictionary, n.d.a). 그루밍족이 증가하면서 남성 전용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으며, 이들을 위한 남성 전용 패션지, 트렌디한 바버숍(barbershop), 남성 전용 메이크업 제품, 전용 멀티숍(multishop) 등이 등장하면서 남성 소비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케이팝(K-pop)과 게임, 드라마, 화장품, 기술력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고조된 가운데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에 방문하는 많은 여행객들이 한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등 한국의 전통 패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다. 하지만 전통문화를 이용한 패션 상품은 주로 여성들의 스카프와 의상 그리고 홈데코(home decoration)용으로 남성을 위한 상품은 매우 적다. 남성 패션 시장의 다양한 변화와 확산에 비해 남성 패션 액세서리는 브랜드나 제품이 다양하지 못한 상황이다.

넥타이는 남성이 정장을 착용할 때 필수적 구성 요소이며, 정장 연출 시 크게 변화를 줄 수 있고, 착용하는 개인의 감각과 개성을 나타내는 액세서리이다(Suh, 2017). 최근에는 넥타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삼성물산은 2019년 넥타이 매출이 2018년보다 90%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Kim, 2020). 이런 현상은 밀레니얼 세대가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격식보다는 개성을 표현하는 액세서리로 넥타이를 활용하면서 나타났으며, 다양한 색감과 디자인의 넥타이가 생산되도록 일조하고 있다(Kim, 2020).

남성들의 공식화되어 있는 패션 아이템인 넥타이에 전통문화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꾸준히 진행되어왔으나, 주로 디자인 개발에만 제한되고 상품화되어 실질적인 판매와 연결된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색동(Suh, 2017)과 공예 염색기법(Kang & Cho, 2010; Suh, 2010), 전통문양을 활용한 넥타이 디자인 개발(Moon, 2011; Park & Park, 2012; Yang, 2017) 등과 같은 선행 연구들은 디자인의 개발에만 주력하였다. 본 논문은 현재의 넥타이 디자인 트렌드 조사를 바탕으로 전통을 접목한 창의적인 디자인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면세점, 미술관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성이 있는 넥타이를 개발하였고, 한국적 색채와 독창성을 지니는 문화상품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관련 서적과 연구 논문, 인터넷 자료를 통해 넥타이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의미에 대해 고찰한 후 패턴 넥타이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넥타이 브랜드이며, 2020년 3월 온라인 몰에서 가장 다양한 넥타이의 종류를 판매하고 있는 에르메스(Hermès)(579점)와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151점)를 선정하여 2020년 넥타이 패턴 트렌드를 분석 하였다. 넥타이의 패턴 트렌드는 두 브랜드의 차이는 존재하나 인공물문을 이용한 패턴의 디자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 전통 문양 중 인공물문 활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인공물문에 대한 한국 전통 문양을 수집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미와 상징성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미지 자료는 문화 포털(www.culture.go.kr), 네이버 지식백과(terms.naver.com) 등의 전문 사이트와 국내외의 전통 문양에 대한 전문 서적, 박물관에서 발행된 도록과 화보와 덕수궁, 경복궁 등을 방문하여 직접 찍은 사진들을 활용하였다. 선정된 문양 이미지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Adobe Illustrator) CC 버전을 활용하여 보완, 수정하여 도안하였고, 반복

구간을 설정한 후 패턴화하였다. 패턴화한 이미지는 다량의 제품 제작에 용이하도록 사용 도수를 제한하여 실크스크린(silk screen) 기법과 자카드(jacquard) 직조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전통 문양

한국의 전통 문양은 건축물과 의복, 그림, 생활용품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전통 문양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한 분류법을 참고하여 인물문, 동물문, 식물문, 인공물문, 자연산수문, 문자문, 기하문, 복합문, 기타문으로 조사하였다. 그중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넥타이 패턴 트렌드를 고려하여 인공물문을 활용하고자 자료를 조사하였다.

인공물문은 동물이나 식물이 아닌 인공물을 이용한 문양으로 형태보다는 의미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인공물을 활용한 문양들이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났으며, 그중 넥타이에 활용하기에 유용한 문양으로 칠보문, 고리금문, 꽃살문 그리고 전통 문양은 아니나 전통 생활용품인 고려, 조선 시대 도자기를 그래픽으로 단순화한 문양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롭게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1) 칠보문: 전보

예로부터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에서는 복을 받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상징물로서 칠보(일곱 가지의 상징 도상)를 복식을 비롯하여 각종 생활 기물과 건축물로 이용하여 장식하였다. 그중 전보는 원보라고도 불리며 중국의 발음으로 보(寶)와 복(福)과 같은 발음으로 복을 상징하게 되었다. 또한, 예전의 엽전 모양인 겹은 둥글고 네모난 구멍이 있는 모양으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라는 것을 뜻하며 돈은 언제나 복을 상징하며 사용되었다(Lim, 1998, p. 135). 청자 투각 칠보문 뚜껑 향로(Figure 1)에서 상단의 투각 장식에서 나타나는 것이 칠보문인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4개의 고리 모양이 조합되어 만든 기하학적 연속무늬로 나타나고 있다. 칠보문은 이런 기본 무늬뿐만 아니라 기본 형태에 중앙에 꽃무늬를 첨가하기도 하며, 이음 부분에 구슬을 배치하기도 하고 고리 안을 장식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이것을 이어 사용하거나 흠어진 모양으로도 사용하였다(Naver dictionary, n.d.b).

2) 고리금문

고리금문은 원, 타원, 동심원 등의 둥근 형태의 고리를 연속시킨 비단 무늬이다(Goligeummun, n.d.). 칠보 무늬 중 엽전 모양을 연결한 무늬로 여의고리금, 소슬고리금, 쌀미고리금, 쌍고리금 등 다양한 모양으로 연결되며, 윤회와 장수, 진리의 무한



Figure 1. 청자 투각 칠보문 뚜껑 향로 (12C).
From Naver dictionary. (n.d.c).
<https://terms.naver.com>



Figure 2. 청자 투각고리문 의자 (13C).
From Naver dictionary. (n.d.d).
<https://terms.naver.com>



Figure 3. 교태전 부연 (15C).
From Buyeon. (n.d.).
<https://www.culture.go.kr>

성을 상징한다(Lim, 1998). 이러한 고리를 연속해서 사용하면 십전도(十錢圖)라 하여 “모든 일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Lim, 1998, p. 60). 청자 투각고리문 의자 <Figure 2>의 경우 철보문 중 활 문양을 사용한 것으로 활을 겹쳐 배치하고 그 사이사이를 매듭으로 장식하여 고리금문의 형태로 나타내었다. 교태전 부연 <Figure 3>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부연에는 고리금문의 연속성을 모두 보여주지 않고 일부분만을 보여주고 있지만, 건물 전체에서 여러 부연을 동시에 보았을 때는 무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고리금문이 완성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3) 꽃살문

한국의 건물은 목조건물로 창과 호가 혼용되어 쓰였으며 창호의 문살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살은 <Figure 4>에서 보이듯 가로, 세로가 직각으로 짤 모양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난다(Lim, 1998). 문살문은 살대의 짜임에 따라 완자(卍字)살, 용자(用字)살, 아자(亞字)살, 정자(井字)살, 산가지(算木) 모양의 숫대찰상, 빗살창과 소슬빗살창 등이 있다. 꽃살문은 이런 살창에 각종 꽃무늬를 장식한 것으로 불교의 깨우침의 단계를 꽃으로 비유한 것으로 보이며, 사찰과 궁궐에서만 사용되었고 예술적 가치가 높다(Naver dictionary, n.d.e). 가장 오래된 빗살은 수덕사의 대웅전을 들 수 있으며, 조선 초기의 것으로 강릉 문묘 대성전, 중기의 것으로는 전등사 대웅전, 화엄사 대웅전

등이 있으며, 말기의 것으로는 범어사 등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Munsalmun, n.d.). 이런 문살무늬는 단순히 창과 문에만 나타나지 않고 노리개와 함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도 장식 무늬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 전통 문살문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기본 다각형 축출을 한 후 컴퓨터 그래픽의 패턴 생성을 통해 문살 문양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으므로 패턴을 활용하는 벡터 디자인에 적합하였다(Lee, 2008).

4) 도자기

고려 시대 귀족과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청자와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백자는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청자는 9세기 혹은 10세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이 원류이나 모방하지 않고 상감기법을 독창적으로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에 걸쳐 무신의 집권과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 청자의 형태가 과장되고 무늬도 촘촘해지는 변화가 일어났으며(Figure 7), 14세기에는 원나라의 지배하의 권문세족과 사대부 세력의 등장으로 생활용 자기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수급의 문제로 청자를 대신하여 분청사기를 대량생산하게 되었다. 분청사기는 청자에 백토를 발라 다시 구워낸 자기의 형태로 분청사기는 <Figure 8>의 분청사기 박지 모란문병에서처럼 무늬에서 점차 백토분장으로 백자화가 되어 청자와 백자 사이의 이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과도기적 작품으로



Figure 4. 부산 범어사 꽃살문 (18C).
From Naver dictionary. (n.d.f).
<https://terms.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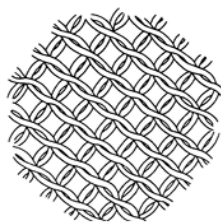


Figure 5. 범어사 대웅전 (n.d.).
From Lim. (1998).
p.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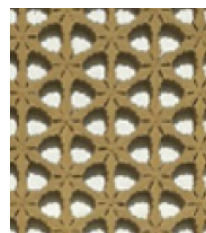


Figure 6. 창경궁 명정전 (15C).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19, 2016).



Figure 7. 청자 양각 운룡문 매병 (12C).
From "Cheongja". (n.d.).
<http://www.leeum.org>



Figure 8. 분청사기 박지 모란문병 (15C).
From "Buncheongsagi". (n.d.).
<http://www.leeum.org>



Figure 9. 백자호 (18C).
From "Baegjaho". (n.d.).
<http://www.leeum.org>

보인다(Naver dictionary, n.d.g). 분청사기의 다양한 기법은 율동적이고 활달한 느낌을 자아낸다고 평가되었다(Naver dictionary, n.d.h). 흔히 조선의 백자(Figure 9)를 서민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나 이는 미술의 중심이 대중에게로 이행되면서 대중들도 세련된 미술을 향유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대중의 참여와 양반계급의 미의식이 융합되어 인위적이지 않고 과한 기교가 나타나지 않은 자연을 닮은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Naver dictionary, n.d.i).

2. 넥타이

1) 넥타이의 기원과 발달

넥타이의 기원은 중국의 초대 황제 시대에 착용했던 천과 고대 로마의 보병들이 위생과 기후의 영향으로 착용한 천으로 볼 수 있으며(Chaille, 1998/2000), 이는 실용적인 용도와 상징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현재의 넥타이는 실용적인 용도보다는 장식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이런 측면에서의

기원을 찾아보면, 17세기 후반에 프랑스의 크라바트(Cravate)를 들 수 있다(Jeon, as cited in Bae & Kim, 2017). 크라바트는 루이 14세 때 크로아티아의 병사가 목에 두른 천에서 유래되었으며, 그들은 사각 천을 대각선으로 반복해 좁게 만들어 목에 나비매듭을 지어 연대를 나타냈다(Jung, 2007). 크라바트는 흰 삼베나 모슬린으로 매듭을 만들고 레이스나 자수로 장식하였고, 이는 영국으로 퍼지게 되었다(Figure 10). 이후 전투가 잦은 군주나 제후들에 의해 스타인커크(Steinkerk)가 탄생하였는데 재빨리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였다(Figure 11). 18세기 영국에서는 스톡스(Stock)라 불리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났으며(Figure 12), 이후 1740년경에는 <Figure 13>에서 보이듯 머리를 묶는 작은 그물 무늬의 검은 실크 리본을 활용하여 흰 넥타이에 장식하는 형태인 솔리테어(Solitaire)가 나타났다(Kim, 2007).

19세기에는 남성복 유행의 선두가 영국으로 바뀌면서 크라바트 대신 네크클로스(neckcloth)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고, 1830년경부터는



Figure 10. 크라바트 (n.d.).
From Chung. (2004). p. 264.



Figure 11. 스타인커크 (17C).
From Jung. (2007). p.13.



Figure 12. 스톡스 (19C).
From Jung. (2007). p.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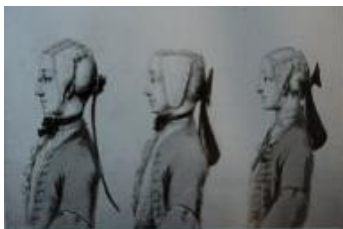


Figure 13. 솔리테어 (18C).
From Jung. (2007). p. 15.



Figure 14. 초기의 포인핸드 (19C).
From Jung. (2007). p.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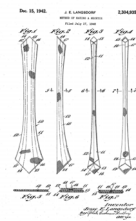


Figure 15. 랭스도프 타이 (1942).
From Ford. (2015).
<https://memysuitandtie.com>

넥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1771년 영국에서는 애스콧(Ascot) 경마장이 설립되면서 나타난 애스콧 타이(Ascot tie)는 스카프의 형태에서 띠 형태의 넥타이로 바뀌는 과도기로 두 타이의 요소가 같이 나타난다. 넥타이는 점차 띠 모양으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길이와 너비, 소재가 사용되어 1890년에는 현대적 외형을 갖춘 더비 타이(Derby tie)와 <Figure 14>에서 보이는 형태인 포인핸드 노트(four-in-hand knot)로 발전하였다(Naver dictionary, n.d.). 포인핸드 노트는 오늘날 넥타이의 기본 형태로 볼 수 있으며, 1910년 정착되어 사이즈와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났다(Jung, 2007).

이후, 1920년대 미국의 제시 랭스도프(Jesse Langsdorf)가 실크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바이어스로 재단한 넥타이의 제작 방법으로 특허를 받아 오늘날의 넥타이를 만들었다(Figure 15). 이 넥타이는 길이는 약 140cm이고 가장 넓은 폭이 7~8cm로 현대의 넥타이 사이즈와 비슷하다(Chaille, 1998/2000). 이 넥타이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폭과 소재, 색상과 패턴들이 변화하여 다양한 디자인이 선보여졌다(Kim, 2007). 1930년대에 와서는 넥타이의 색상과 디자인이 제한되어 민무늬의 단색 넥타이나 체크와 스트라이프의 문양이 대부분으로 나타났으며, 1930년대 말부터는 미국 주트 슈트 룩(American zoot suit look)의 영향으로 화려하고 와일드한 무늬의 넥타이와 과감한 기하학적 문양이 나타났다. 1940년대 말과 50년대는 사회의 어두운 분위기에 맞추어 단정한 무늬의 좁고 긴 넥타이가 유행하였고, 60년대 초반까지 넥타이는 점

차 좁아졌다. 1960년대 중반부터는 1970년대에는 다시 넓고 화려한 넥타이가 유행하였다. 1980년대에 제조업의 불황으로 넥타이의 디자인도 보수적 성향으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문양의 타이도 공존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복고풍과 개성 있는 타이, 화가의 작품 등 다양한 디자인이 나타났다(Jung, 2007).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 남자들의 세계에서 넥타이는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개성을 표현하고 미의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넥타이들의 무늬는 매력적인 이미지 형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며, 넥타이 색상과 상호작용을 하여 시각단계에서 영향을 줌으로(Kang & Lim, 1996), 남성 패션 한류를 위해 넥타이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무늬를 활용한 새로운 패턴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은 차별화된 한국적 모티프(motif)를 트렌드를 반영하여 패션 한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큰 의미를 가진다.

2) 넥타이의 문양 트렌드 분석

(1) 2020 에르메스 넥타이 문양 트렌드

에르메스는 티에리 에르메스(Thierry Hermes)가 1837년 파리(Paris) 그랑 볼르바르(Grands Boulevards)에서 마구 사업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1855년과 1867년 파리 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각국의 귀족들에게 말안장 등을 납품하면서 성장했다. 이후 핸드백, 여성복 등 사업을 확장하였고, 1937년에는 리옹(Lyon)에서 스카프 제조 공

장을 세우면서 실크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1941년에는 실크 넥타이를 선보였다(Park, 2013). 에르메스의 넥타이는 에르메스의 디자인을 가장 잘 선보이는 물품으로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Lee, 2003).

에르메스의 넥타이는 에르메스 공식 홈페이지(www.hermes.com)를 통해 확인하였고, 2020년 3월 한 달 동안 사이트에 상품 등록된 넥타이 이미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넥타이의 경우 새로운 형태의 니트 조직으로 제작된 경우와 무늬가 없는 단색을 제외한 넥타이는 총 334점이었으며, 에르메스 문양 분포표는 <Table 1>과 같다. 에르메스의 기원과 관련하여 승마에 관련한 다양한 승마용품(모자, 말발굽 등)이 인공물문으로 등장하였고, 그 외에도 다양한 고리문과 조각배, 닳, 3D 안경, 마이크 등의 여러 장르의 인공물문이 등장하였다. 복합문의 경우에는 사람과 동물 또는 식물과 동물이 혼합적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는 동물문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말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 외에는 강아지, 물고기, 공룡 등의 무늬가 단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무늬는 문자문으로 에르메스의 머리글자인 H를 활용한 무늬들이었다. 기하문의 경우에는 사각형과 원형 등의 무늬로 나타나고 있다. 인물문은 다양한 포즈의 사람들이 무늬로 등장하였고, 기타문

은 체크와 스트라이프 등의 무늬로 나타났다. 식물문의 경우에는 에르메스에서 적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2) 2020 페라가모 넥타이 문양 트렌드

살바토레 페라가모는 1919년 캘리포니아(California)의 산타 바버라(Santa Barbara)에서 개업한 구두 제조 및 수리점에서 시작하여 영화 소품으로 사용하는 구두를 제작하면서 번성하였다. 1927년 회사를 설립 후 수제화 수요를 맞추기 위해 피렌체(Firenze) 지역에 작업장을 열고 회사를 이전하였다. 1948년 미국 뉴욕(New York)에 매장을 열고 유명 할리우드(Hollywood)의 여배우들이 구두를 착용하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넓힐 수 있었다. 이후 1971년에는 실크와 액세서리 컬렉션을 선보였고, 1975년에는 남성복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기성복 양산을 시작하였다. 1986년에는 홍콩(Hong Kong)을 필두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을 시작하였다(Naver dictionary, n.d.k).

2012년 기준 아시아 시장이 전체 영업이익의 약 45%를 차지할 만큼 아시아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브랜드이다. 특히 남성 실크 넥타이는 유명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어 고급 넥타이를 소개할 때 자주 언급되고 있다(Kim, 2009; Park, 2001).

페라가모 넥타이는 페라가모의 공식 홈페이지

Table 1. 에르메스 문양 분포.

문양의 종류	인물문	동물문	식물문	인공물문	문자문	기하문	복합문	기타문	총계
분포 (%)	12 (4%)	34 (10%)	8 (2%)	154 (46%)	38 (11%)	33 (10%)	42 (13%)	13 (4%)	334 (100%)



Figure 16. 고리, Hermes collection 2020. From H maille tie. (n.d.). <https://www.hermes.com>



Figure 17. 3D 안경, Hermes collection 2020. From 3D tie. (n.d.). <https://www.hermes.com>



Figure 18. 승마 모자, Hermes collection 2020. From Panoplie Twillbi tie. (n.d.). <https://www.hermes.com>

Table 2. 페라가모 문양 분포.

문양의 종류	인물문	동물문	식물문	인공물문	기하문	총계
분포 (%)	9 (6%)	40 (29%)	15 (11%)	73 (53%)	2 (1%)	13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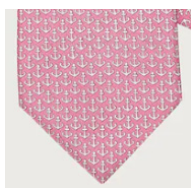


Figure 19. 앵커,
Ferragamo collection 2020.
From Anchor-print silk tie. (n.d.).
<https://www.ferragamo.com>



Figure 20. 간치니,
Ferragamo collection 2020.
From Ganchini-print silk tie. (n.d.).
<https://www.ferragamo.com>



Figure 21. 체스,
Ferragamo collection 2020.
From Chess-print silk tie. (n.d.).
<https://www.ferragamo.com>

Table 3. 모티프의 배열 형식.

	올오버형	사선형	그물형	가로선형
모티프 배열 형식				

(www.ferragamo.com)를 통해 확인하였고, 2020년 3월 한 달 동안 사이트에 상품으로 등록된 넥타이 이미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넥타이의 경우 무늬가 없는 단색을 제외한 넥타이는 총 139점이었으며, 페라가모 문양 분포표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인공물문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페라가모의 상징인 간치니(Ganchini) 무늬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고 그 외에도 앵커, 체크, 연필 등의 다양한 인공물문이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동물문으로 레이, 쥐, 앵무새, 고양이 등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세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식물문으로 클로버, 칠리 페퍼 등이 나타났다. 그 외에는 인물문과 기하문이 나타났으며, 에르메스와는 다르게 문자문, 복합문, 기타문은 나타나지 않았다.

(3) 에르메스와 페라가모 넥타이 모티프 배열
에르메스와 페라가모의 넥타이에서 주요하게 공

통으로 나타나는 문양은 인공물문, 동물문, 식물문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두 브랜드 모두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공물문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또한, 두 브랜드 모두 넥타이의 모티프의 배열은 <Table 3>에서 보이는 것처럼 올오버(all-over)형, 사선형, 그물형, 가로선형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논문의 넥타이 모티프 배열도 4가지 모티프 배열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III. 넥타이 디자인 개발

넥타이는 실용적인 용도보다 장식적 용도로 더욱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개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넥타이 브랜드의 트렌드에 맞추어 전통 인공물문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레이어아웃으로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제작 방식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C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선정된 무늬를 도안하고 변형하여 넥타이를 디자인한 후, 1차 디자인 선정을 통해 선택된 디자인을 넥타이 제작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인 실크스크린과 자카드 직조를 통해 제작하였다. 실크스크린 기법은 정교한 프린트가 가능하여 고급 넥타이와 스카프에 주로 쓰이는 방식으로 대량으로 생산될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제조된 실크스크린 판은 색상 조합을 쉽게 변경할 수 있어 시즌에 따라 다양한 조합의 색상들을 프린트하기에 수월하다. 자카드 직조 경우에는 날염보다 정교하며, 무늬가 입체적으로 표현되고 화려하다(Oh, 2009). 또한, 중량감이 있어 F/W용이나, 클래식한 중년용 혹은 젊은 소비자들도 자카드 넥타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많은 슈트 브랜드에서는 자카드 소재의 넥타이 출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넥타이의 크기는 가장 일반적인 크기인 대폭은 8cm, 소폭은 4cm, 길이는 150cm로 모두 제작하였다. 넥타이의 소재는 프린트 넥타이의 경우 모두 100% 실크 트윌 원단에 프린트하였고, 자카드의 경우에도 100% 실크 원사로 직조하여 고급문화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넥타이 디자인에 사용할 인공물문은 삼국시대와 조선 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인공물문을 중심으로 250여 점의 이미지 자료 조사하였고, 그중 넥타이의 모티프로 활용하기 적합한 이미지를 선별하여 최종 9점의 모티프가 활용되었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한국 전통 문양을 현대적 트렌드에 맞도록 변형하고, 리드로잉(redrawing)을 통해 좀 더 정교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통하여 한국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보다 가까이에서 향유하며 세계적으로 알리고자 하였다.

색상은 전통 색상을 기반으로 하되 다른 브랜드에서 선호되는 트렌드 색상을 참고하여 다양한 톤의 색상 배합을 선정된 디자인의 3배수 이상 테

스트하여 진행하였고, 전체적인 모티프의 배열과 색감에 집중하여 예술성과 상품성을 모두 갖추고자 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넥타이 모티프는 실크 원단에 프린트하여 샘플로 제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패션 전문가 3인이 한국의 전통문화의 우수성이 잘 드러나고 트렌드에 맞으며, 상품성을 갖춘 넥타이 문양에 어울리는 색상을 선정한 후, 실물 넥타이로 제작되었다.

1. 칠보문

칠보문 중 엽전을 형상화한 전보를 모티프로 패턴을 디자인하였다. <Figure 1>의 청자 항로에서 보이는 칠보문과 함께 <Figure 5>의 범어사의 문살문의 연결 형태를 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칠보문을 디자인하였다. 디자인을 통하여 전보의 상징인 하늘과 땅 그리고 돈과 복을 담고자 하였으며, 디자인 방법은 <Figure 16>과 같은 그물형 배열 형식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Figure 1>의 청자에 표현된 사방이 연결되어있는 전보의 무늬를 원형 그대로 아웃라인 작업을 하여 분리하였다. 그 후 입체형의 아웃라인 작업물을 평면으로 펼쳐졌을 때를 가정하여 무늬를 다시 그려 평면 패턴 작업을 마쳤다. 평면 패턴으로 작업한 무늬를 범어사의 문살문의 형태로 연결 패턴을 수정한 후, 칠보문의 라인이 두드러지도록 2pt의 얇은 테두리 선을 그린 후 선을 도형으로 확장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패턴과 테두리의 색상 대비를 강조하여 보여주고자 하였다. 다양한 반복 구간의 사이즈를 제작한 후, 회의를 통해 타원형의 1.8 x 2.3cm의 반복 구간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패턴의 형태는 <Figure 22>로 모티프를 서로 겹쳐진 그물형으로 배치되었다. 패턴의 배경색과 무늬색 그리고 테두리색의 3도로 구성되어 실크스크린판으로 제작하였다. <Figure 23>의 칠보문 도안은 아래 색상 조합에서 보이는 것

Table 4. 칠보문 넥타이.

자료	패턴 작업	색상 작업	최종 완성품
 <p>Figure 1. 청자 투각 칠보문 뚜껑 향로. (12C). From Naver dictionary. (n.d.c). https://terms.naver.com</p>  <p>Figure 5. 범어사 대웅전 (n.d.). From Lim. (1998). p. 233.</p>	 <p>Figure 22. 칠보문 도안. Photographed by the author. (April 7, 2020).</p>	 <p>Figure 23. 칠보문 도안 색상 조합. Photographed by the author. (April 21, 2020).</p>	  <p>Figure 24. 칠보문 넥타이. Photographed by the author. (September 7, 2020).</p>






처럼 패턴의 색상을 9가지 변형으로 샘플 작업을 하였으며, 그중 상품성이 높게 평가된 3가지 색상(레드, 오렌지, 옐로우)을 선택하여 최종 완성품으로 제작하였다(Figure 24).

2. 칠보꽃살문

<Figure 25>의 칠보꽃살문은 <Figure 1>의 청자 향로 뚜껑에서 보이는 칠보문과 <Figure 4>에서 보이는 부산 범어사의 꽃살문을 조합하여 디자인 하였다. 기본 원형의 전보 문양에 마름모를 배치한 후 모양을 가다듬어 변형하였고, 전보 문양의 중심에 범어사 꽃살문에서 꽃무늬만을 분리하여 배치하였다. 이런 칠보문과 꽃무늬를 통해 하늘과 땅, 복과 깨달음의 의미를 넥타이에 담고자 하였

다. 칠보문 넥타이 디자인과 같은 전보 무늬에서 디자인의 영감을 받았지만, 칠보문 넥타이와는 배치에서 큰 차이를 두었다. 칠보문에서는 전보 문양이 완벽하게 연결된 그물형의 패턴으로 제작하였으나 문살문에서는 원형을 살려 4방향의 연결구조의 그물형을 제작하여 무늬의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Figure 20>의 그물형 안에 원형 문양이 올 오버 배열된 느낌을 주는 이중형 배열 디자인이다. 변형된 전보를 감싸는 5pt의 두꺼운 외각선을 도형화하여 무늬를 2가지 색으로만 구성하였고, 여기에 배경색 1가지를 추가하여 3도의 작업을 하였다. 실크스크린의 경우 색도수가 추가될 시 가격이 높아짐을 고려하여 단순한 색상 구조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모티프의 사이즈는 1 x 1cm로 제작되었다. <Figure 26>의 칠보꽃살문 도

Table 5. 철보꽃살문 넥타이.

자료	패턴 작업	색상 작업	최종 완성품
 <p>Figure 1. 청자 투각 철보문 뚜껑 향로 (12C). From Naver dictionary. (n.d.c). https://terms.naver.com</p>  <p>Figure 4. 부산 범어사 꽃살문 (18C). From Naver dictionary. (n.d.f). https://terms.naver.com</p>	 <p>Figure 25. 철보꽃살문 도안.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y 25, 2020).</p>	 <p>Figure 26. 철보꽃살문 도안 색상 조합. Photographed by the author. (June 8, 2020).</p>	 <p>Figure 27. 철보꽃살문 넥타이. Photographed by the author. (September 7, 2020).</p>

안 색상 조합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총 12가지의 색상 변형을 테스트한 후 <Figure 27>의 철보꽃살문 넥타이에서 보이는 것처럼 레드, 블루, 스카이 블루, 그레이의 4가지 색상의 넥타이가 최종 완성품으로 제작되었다.

3. 칠보고리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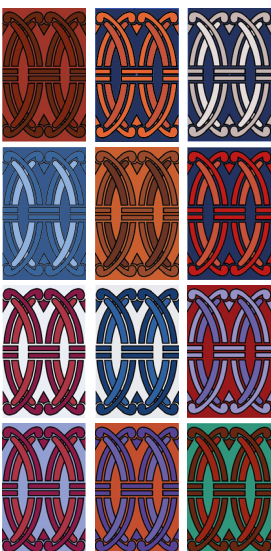

칠보고리문은 <Figure 2>의 청자 투각 고리문 의자에 나타난 고리문 중 칠보문(활무늬)만을 분리하여 가로선형 배치를 통해 최대한 원형을 보존한 디자인을 하고자 하였다. <Figure 21>과 같은 가로선 배치는 많이 사용되지 않아 독특하며 안정감을 준다. 칠보고리문은 칠보의 길상 의미와 고리문의 윤회와 장수, 진리의 무한한 의미를 담고 있다. <Figure 29>에서 보이듯이 겹으로 그려진 칠보문(활무늬)은 안과 밖을 분리하여 색상을 넣어

무늬가 도드라지도록 하였다. 무늬색 2종류, 배경색, 테두리색의 총 4도의 구성하여 실크스크린 제작을 진행하였으며, 무늬의 반복 사이즈는 0.85 x 0.53cm로 구성되어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Figure 28>의 칠보고리문 도안의 패턴을 가로선형으로 배열하여 디자인을 완성하였다. <Figure 29>의 칠보고리문 도안 색상 조합에서 보이듯 총 12가지 변형의 색상을 샘플 제작하였으며, 레드(무늬색 레드 계열, 배경색 네이비 계열), 블루(무늬색 블루 계열, 배경색 블루 계열), 그레이(무늬색 그레이 계열, 배경색 네이비 계열), 퍼플(무늬색 퍼플 계열, 배경색 오렌지 계열) 4가지 색상을 선정하여 최종 완성품으로 제작하였다(Figure 30).

4. 고리금문

고리금문은 경복궁의 교태전의 부연에 나타난




Table 6. 철보고리문 넥타이.

자료	패턴 작업	색상 작업	최종 완성품
 <p>Figure 2. 철차 투각고리문 의자 (13C). From Naver dictionary. (n.d.d). https://terms.naver.com</p>	 <p>Figure 28. 철보고리문 도안. Photographed by the author. (June 11, 2020).</p>	 <p>Figure 29. 철보고리문 도안 색상 조합. Photographed by the author. (July 7, 2020).</p>	 <p>Figure 30. 철보고리문 넥타이. Photographed by the author. (September 7, 2020).</p>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되었다(Figure 3). 넥타이에서 많이 쓰인 스트라이프 사선 배치와 고리문을 교대로 배치하여 더욱 모던해 보이도록 디자인하였다. 자료에서는 고리금문의 일부분만 보이지만 부연의 연속적인 모습에서 고리금문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연속적인 고리금문으로 다시 제작하여 패턴화하고자 하였다. 이런 고리금문이 가지고 있는 상징은 윤회와 영속성 그리고 장수이며 이런 의미를 넥타이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테두리로 가려져 있는 부분을 복원하여 2중 타원형의 고리를 구성하였고, 좀 더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 타원의 배치를 앞뒤로 구성하였다. 율동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뒤쪽에 배치된 타원은 원으로 교체하였고, 앞쪽에 배치된 2중 타원의 고리를 가로로 넓게 변형하였다. <Figure 3>에서 보이는 2중 테두리를 활용하여 고리 위쪽에 3중 테

두리선으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패턴은 45도 경사를 주어 사선으로 배치하여 다이내믹 느낌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Figure 31>과 같다. 무늬의 반복 구간은 1.5 x 0.8cm로 제작되었으며, 입체감을 더욱 살리기 위해 앞에 배치된 타원과 뒤쪽 원의 색상을 구분하여 표현하였다. 고리와 사슬에 총 4가지 색상을 사용하고 배경 색상을 구분하여 총 5도의 색상으로 작업하였고, <Figure 32>의 고리금문 도안 색상 조합에서 보이는 것처럼 9가지 색상을 테스트한 후 입체감 표현에 뛰어난 자카드 직조로 변형의 샘플을 제작하였다. 그중 <Figure 33>의 고리금문 넥타이에서 보이듯 브라운과 그레이, 네이비 색상을 최종 완성품으로 생산하였다. 자카드의 경우 입체적 표현이 정교하나 실크스틴 프린트보다는 무늬의 정교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잡하게 진행된 무늬의 경우 적합하지 않다.

Table 7. 고리금문 넥타이.

자료	패턴 작업	색상 작업	최종 완성품
 <p>Figure 3. 교태전 부연 (15C). From Buyeon, (n.d.), https://www.culture.go.kr</p>	 <p>Figure 31. 고리금문 도안.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16, 2020).</p>	 <p>Figure 32. 고리금문 도안 색상 조합. Photographed by the author. (April 6, 2020).</p>	  <p>Figure 33. 고리금문 넥타이. Photographed by the author. (September 7, 202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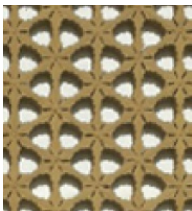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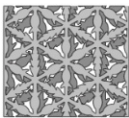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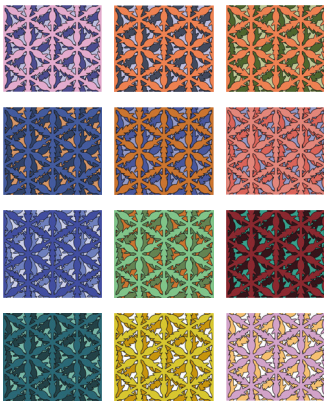

또한, 자카드를 직조하는데 사용하는 원사의 색상은 기성품으로 컬러칩에 부합하는 섬세하고 정확한 색상을 구현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FW용으로 중량감이 있고 직조감과 입체감이 돋보여 사용되었다.

5. 꽃살문

<Figure 34>의 꽃살문은 <Figure 6>의 창경궁 명정전의 꽃살문을 바탕으로 한 칠보문과 같은 사방으로 연결된 그물형 배열 디자인이다. 꽃살문은 왕궁과 불교에서 주로 사용되어 악과 나쁜 기운을 막는 상징적 무늬로 사용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아 넥타이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먼저 창경궁의 꽃살문을 정교하게 벡터 작업을 한 후 반복 구간을 설정하여 패턴화 작업을 하였다. 이렇게 작업된 꽃살문의 패턴을 두 겹으로 배치하여 안쪽으로 그림자가 보이는 듯한 효과를 주고자 하였다. 배경색과 2가지 꽃살문이 겹쳐진 상태에서 다시 반

복 구간을 설정하여 <Figure 34>의 자체로 반복을 시킬 수 있는 작업을 하였다. 이 작업 과정은 다음과 같다. 배경과 겹쳐진 2개의 패턴 위로 반복 구간을 설정하여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한 후 모티프에서 벡터의 획 부분은 확장하고 패스파인더(pathfinder)를 통해 반복 구간 바깥쪽의 패턴을 삭제하였다. 그런 후 삭제하여 완성된 패턴을 격자배치를 하여 패턴의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였다. 패턴의 반복 구간은 3.5 x 4cm로 작업하였으며, <Figure 34>의 꽃살문은 배경색과 2가지의 패턴 색 그리고 명확하게 무늬의 구분을 위한 얇은 검은색 테두리까지 총 4도의 실크스크린 작업을 하였다. 꽃살문은 테두리 모양이 정교하여 자카드보다 실크스크린 작업이 더 적합하였다. 자카드의 경우 입체적 표현이 정교하나 프린트보다는 무늬의 정교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잡하게 진행된 무늬의 경우 적합하지 않았다. <Figure 35>의 꽃살문도안 색상 조합에서 보이는 것처럼 총 12가지의 색상의 변형을 샘플 제작하였고, 최종 <Figure 36>의

Table 8. 꽃살문 넥타이.

자료	패턴 작업	색상 작업	최종 완성품
 <p>Figure 6. 창경궁 명정전 (15C).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19, 2016)</p>	 <p>Figure 34. 꽃살문 도안. Photographed by the author. (April 22, 2020).</p>	 <p>Figure 35. 꽃살문 도안 색상 조합.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y 11, 2020).</p>	 <p>Figure 36. 꽃살문 넥타이. Photographed by the author. (September 7, 2020).</p>

꽃살문 넥타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네이비(무늬 네이비 계열, 배경 오렌지 계열), 핑크(무늬 핑크 계열, 배경 블루 계열) 오렌지(무늬 오렌지 계열, 배경 그린 계열), 퍼플(무늬 퍼플 계열, 배경 블루 계열) 4가지 색상을 완성 제품으로 제작하였다.

6. 도자기문

도자기는 전통 문양은 아니나 그 형태의 조형미가 서구와는 다른 단순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풍만감이 있어 이를 평면적 그래픽으로 패턴화하고 겹쳐서 새로운 무늬 형태로 넥타이 디자인에 적용하여 보았다. <Figure 18, 19, 21> 등 인공물문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올오버 배열이나 3개의 무늬를 겹쳐서 올오버 배열하여 가장 현대적이며 창의적 디자인 개발을 시도하였다.

도자기문은 리움(Leeum)에 소장 중인 <Figure 7>의 청자 양각 운룡문 매병과 <Figure 8>의 분청사기 박지 모란문병 <Figure 9>의 백자호 등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자기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되었다.

청자와 분청사기 백자에서 대표적인 실루엣을 선별하여 작업하였으며, 그래픽으로 표현하여 보다 모던하게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자기들을 조금 더 극적인 실루엣으로 변형시켜 일러스트레이터의 벡터화 작업을 하였다. 3가지의 도자기를 서로 겹치도록 구도를 잡아 패스 파인더의 나누기 기능을 활용하여 벡터를 분리하고, 다양한 색상을 조화시켜 모던하게 작업하였다. 그렇게 최종 작업한 도자기문의 완성 도안은 <Figure 37>과 같다. 도자기문은 그래픽적 표현 방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이기 위해 도자기의 3가지 색상과 배경색 그리고 도자기의 테두리까지 5도로 실크스크린 작업을 하였다. 패턴의 반복 구간은 0.92 x 0.8cm로 작업하였으며, 올오버형으로 배치하였다. <Figure 38>의 도자기문 도안 색상 조합에서 보이듯 총 9가지의 색상 변형을 테스트한 후 오렌지, 민트, 다크 그린의 넥타이가 최종 완성품으로 제작되었다(Figure 39).

Table 9. 도자기문 넥타이.

자료	패턴 작업	색상 작업	최종 완성품
 <p>Figure 7. 청자 양각 운룡문 매병 (12C). From "Cheongja". (n.d.). http://www.leeum.org</p>	 <p>Figure 37. 도자기문 도안.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y 12, 2020).</p>	 <p>Figure 38. 도자기문 도안 색상 조합.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y 24, 2020).</p>	
 <p>Figure 8. 분청사기 박지 모란문병 (15C). From "Buncheongsagi". (n.d.). http://www.leeum.org</p>			
 <p>Figure 9. 백자호 (18C). From "Baegjaho". (n.d.). http://www.leeum.org</p>			
			 <p>Figure 39. 도자기문 넥타이. Photographed by the author. (September 7, 2020).</p>

IV. 결론

본 논문은 한국 전통 문양 중 인공물문을 중심으로 현대적 넥타이 디자인을 연구 개발한 것이다. 현재 남성 패션 시장은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넥타이는 남성의 대표적 액세서리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꾸준한 대규모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넥타이 트렌드를 이끄는 에르메스와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2020 넥타이 트렌드를 분석 후, 가장 빈도수가 높은 인공물문을 중심으로 모티프 배열 방식도 참고하여 최근 넥타이 트렌드에 부합한 경쟁력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공물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약 250점의 이미지 자료를 수집하고 그 상징성에 대해 문헌 고찰을 진행하였다. 그 후 에르메스와 페라가모의 넥타이의 무늬와 배열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고, 수집된 전통 이미지 자료에서 최종 9가지의 모티프를 활용하여 총 6종의 21점의 넥타이를 개발하였다. 모티프의 개발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C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도안하였고, 제작은 실제 생산기법인 실크스크린과 자카드 직조를 진행하였다. 넥타이의 사이즈는 기본 형태인 대폭은 8cm, 소폭은 4cm, 길이는 150cm로 통일하여 제작하였다.

모티프의 디자인과 배열은 다음과 같다. 칠보문

과 칠보꽃살문은 청자 투각 칠보문 뚜껑 향로에서 추출한 칠보문(전보)과 범어사의 문살문을 조합하여 새로운 모티프를 디자인하였고, 모티프를 그물형으로 배치하였다. 선정된 디자인의 3배수의 3도 실크스크린 프린트 작업 후, 칠보문 3개, 칠보꽃살문 4개의 디자인이 선정되어 최종 제작하였다. 칠보고리문은 청자투각돈에서 나타난 칠보문(활무늬)를 분리하여 원형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모티프는 연속적으로 배치하였다. 활무늬를 도드라지도록 겹과 안으로 분리하여 2가지 색상으로 작업하였고 배경색, 그리고 테두리 색까지 4도의 실크스크린으로 제작되었다. 고리금문은 경복궁의 부연에서 영감을 받아 2중의 타원형의 고리로 제작되었으며, 45도의 사선형으로 배치하였다. 고리에 4가지 색상이 사용되었으며 배경색까지 총 5도로 제작되었다. 고리의 입체감을 주고 FW용으로 중량감을 주기 위해 자카드로 제작하였다. 칠보고리문과 고리금문은 각각의 무늬에 고리의 영속성과 장수, 윤회, 진리의 의미를 담고자 하였고 안정감을 주는 가로선 배치를 하였다. 꽃살문은 창경궁의 명정전의 꽃살문에서 추출한 문양으로 디자인되었다. 정교한 벡터 작업 후에 이중으로 배치하여 반복 구간을 다시 작업하였다. 모티프 색상과 테두리색, 배경색으로 4도의 실크스크린 작업으로 진행하였고 꽃살문의 그물형 배치를 그대로 살리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자기는 한국의 대표적 도자기인 청자, 분청사기, 백자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하였다. 리움의 소장된 3가지 형태의 도자기의 실루엣으로 벡터로 작업하여 서로 겹치게 구성하였으며, 모티프의 겹친 부분을 모두 분리하여 마치 투명한 도자기들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모티프를 옅은 버형으로 배치하였고, 도자기의 3가지 색상과 배경색 테두리 색까지 5도의 실크스크린 프린트를 통해 다양한 색감과 현대적 감각을 지닌 그래픽 디자인 작업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모든 넥타이의 모티프는 한국의 전통 인공물문에서 영감을 받아 전통성과 예술성을 보존하면서도 패턴의 형태나 배열, 사이즈 등에서 현대적 트렌드를 반영하고, 색상의 도수를 제한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되 현대적 감성이 묻어나도록 디자인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 무늬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의 전통의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고급화된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가치에 대해 재조명하여 보았다. 한국에는 유구한 역사만큼 전통 인공물문 외에도 무궁무진한 조형 예술품과 무늬들이 존재하며, 이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으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지금이 적기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넥타이의 모티프와 배열을 중심으로 한 트렌드 조사를 바탕으로 디자인하여 그 외의 시즌에 따른 색상이나 조형성 등의 트렌드는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이런 부족한 부분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이 현대적 감각과 트렌드에 맞추어 디자인되고 재가공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많은 후속 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의 전통문화가 세계적으로 향유되어 인류의 패션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3D tie. (n.d.). *Hermès*. Retrieved March 1, 2020 from <https://www.hermes.com/uk/en/product/3d-tie-H646106Tv21/>
- Bae, R. T., & Kim, E. J. (2017). A study on the necktie design application of traditional Korea men's ornamentation.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19(3), 99-108.
- Chaille, F. (2000). *L'ABCdaire de la cravate* (Hwang, S. H., Trans.). Seoul: Changhae. (Original work published 1998)
- Chung, H. S. (2004). *A history of fashion*. Seoul: Kyomunsa.
- Ford, S. (2015, April 30). The History of the Tie. *Me My*

- Suit and Tie*. Retrieved March 1, 2020, from <https://memysuitandtie.com/blog/the-history-of-the-tie/?v=79cba1185463>
- H maille tie. (n.d.). *Hermès*. Retrieved March 1, 2020, from <https://www.hermes.com/kr/ko/product/h-maille-%ED%83%80%EC%9D%B4-H606133Tv16/>
- Jung, M. J. (2007). *Necktie designs & Salvador Dali*. Seoul: Supilchunchusa.
- Kang, K. J., & Lim, J. Y. (1996) The effect of necktie color and patterns on the image formation of the men's sui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0(5), 753-768.
- Kang, K. M., & Cho, K. H. (2010). The development of neckties as cultural products for tourists: Focusing on expressing a maritime image through the effects of hand-dyeing and DTP technique. *Journal of Fashion Design*, 10(3), 55-74.
- Kim, E. J. (2020, February 18). 넥타이-넥타이핀-멜빵... 레트로 열풍에 다시 뜨는 '아재템' [Tie-tiepin-suspenders... 'Ajaetem' re-emerges in the retro fever]. *Donga.com*. Retrieved April 12, 2020, from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18/99752284/1>
- Kim, J. M. (2009, October 20). 외국 브랜드 국내 점유율 50% 넘어설 듯 [Foreign brands likely to exceed 50% of domestic market share]. *MK*. Retrieved June 30, 2020, from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09/10/544367/>
- Kim, S. Y. (2007).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necktie in the modern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5(5), 15-23.
- Lee, S. J. (2003, October 30). [명품 산책-에르메스] 165년 이어온 '전통과 재창조' [[Luxury Walk-Hermès] 165 years of 'tradition and re-creation']. *Naver*. Retrieved June 25, 2020, fr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1&oid=014&aid=0000093363>
- Lee, S. R. (2008). Analysis of patterns of Korean traditional window grille in point of computer.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6(5), 115-121.
- Lim, Y. J. (1998). *Korean traditional patterns Vol. 1 geometrical and abstraction patterns*. Seoul: Yewon.
- Moon, K. H. (2011). Study on the neck-tie design development utilizing the dragon pattern on sword with round pommel. *Journal of the Korean Traditional Costume*, 14(1), 65-75.
- Naver dictionary. (n.d.a). 그루밍족 [Groomin group]. *Naver dictionary*. Retrieved June 12, 2020,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851901&cid=43667&categoryId=43667>
- Naver dictionary. (n.d.b). 칠보문 [Chilbomun]. *Naver dictionary*. Retrieved June 12, 2020,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63833&cid=42635&categoryId=42635>
- Naver dictionary. (n.d.c). 칠보문 [Chilbomun]. *Naver dictionary*. Retrieved June 12, 2020,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30134&cid=46657&categoryId=46657>
- Naver dictionary. (n.d.d). 청자 투각고리문 의자 [Cheongja tugaggolimun Chair]. *Naver dictionary*. Retrieved June 16, 2020,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3797&cid=46657&categoryId=46657>
- Naver dictionary. (n.d.e). 꽃살문 [Flower lattice pattern]. *Naver dictionary*. Retrieved June 16, 2020,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87243&cid=58385&categoryId=58385>
- Naver dictionary. (n.d.f). 문살무늬 [Munsalmuni]. *Naver dictionary*. Retrieved June 16, 2020,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54660&cid=46657&categoryId=46657>
- Naver dictionary. (n.d.g). 분청사기 [Buncheong]. *Naver dictionary*. Retrieved June 18, 2020,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19109&cid=62047&categoryId=62047>
- Naver dictionary. (n.d.h). 분청사기 [Buncheong]. *Naver dictionary*. Retrieved June 18, 2020,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7900&cid=46657&categoryId=46657>
- Naver dictionary. (n.d.i). 도자기 [Porcelain]. *Naver dictionary*. Retrieved June 18, 2020,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43718&cid=46657&categoryId=46657>
- Naver dictionary. (n.d.j). 넥타이 [Necktie]. *Naver dictionary*. Retrieved June 18, 2020,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76491&cid=40942&categoryId=32094>
- Naver dictionary. (n.d.k). 살바토레 페라가모 [Salvatore Ferragamo]. *Naver dictionary*. Retrieved June 28, 2020,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28379&cid=43168&categoryId=43168>
- Oh, Y. H. (2009). *Study on jacquard necktie pattern design using flower motif*.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Panoplie Twillbi tie. (n.d.). *Hermès*. Retrieved March 1, 2020, from <https://www.hermes.com/us/en/product/panoplie-twillbi-tie-H626121Tv04/>
- Park, H. J. (2013, February 1). 글로벌명문가 ⑤ 한뫼 한뫼 名品の 대명사 에르메스家<上> [Global renowned family ⑤ Hermès family, synonymous with luxury goods]. *Asiae*. Retrieved June 18, 2020, from <http://www.asiae.co.kr/new/view.htm?idxno=2013020111032744409>
- Park, J. H. (2001, March 01). 넥타이 명품들 [Luxury Tie Brands]. *Donga.com*. Retrieved June 28, 2020, fr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0050578>
- Park, M. R., & Park, H. R. (2012). A developing of fashion cultural products using Goryeo Celadon.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35(-), 227-236. doi:10.21326/ksd.2012.35.020.
- Suh, O. K. (2010). Necktie design proposition using dyeing techniques. *Archives of Design Research*, 23(5), 293-302.
- Suh, O. K. (2017). A study on necktie design inspired by Saekdong. *Journal of Communication Design*, 60(-), 76-87.
- Yang, S. W. (2017). Necktie pattern design development by motifs of clay figurines from the Silla Kingdom. *The Korean Journal of Art and Media*, 16(1), 181-204.
- 간치니 프린트 실크 타이 [Gancini-print silk tie]. (n.d.). *Salvatore Ferragamo*. Retrieved March 13, 2020, from <https://www.ferragamo.com/shop/kor/ko/men/%ED%83%80%EC%9D%B4-%EC%95%A1%EC%84%B8%EC%84%9>

- C%EB%A6%AC/ties-man-kr/cr-4-luther-722408--9
고리금문 [Goligeummun]. (n.d.). *문화포털* [Culture portal]. Retrieved June 15, 2020, from <https://www.culture.go.kr/tradition/patternView.do?did=9992>
- 문살문 [Munsalmun]. (n.d.). *문화포털* [Culture portal]. Retrieved June 15, 2020, from <https://www.culture.go.kr/tradition/patternView.do?did=35418&reffer=shape&xdimension=all&dpid=142&xtaxonomy=%EC%9D%B8%EA%B3%B5%EB%AC%BC%EB%AC%B8&xtaxonomy2=%EB%AC%B8%EC%82%B4%EB%AC%B8&cPage=1>
- 백자호 [Baegjaho]. (n.d.). *Leeum*. Retrieved June 18, 2020, from <http://www.leeum.org/html/collection/traditional.asp>
- 부연 [Buyeon]. (n.d.). *문화포털* [Culture portal]. Retrieved June 12, 2020, from <https://www.culture.go.kr/tradition/patternOrigin.do?did=19015&reffer=shape&gubun=>
- 분청사기 박지 모란문병 [Buncheongsagi bagji molanmunbyeong]. (n.d.). *Leeum*. Retrieved June 18, 2020, from <http://www.leeum.org/html/collection/traditional.asp>
- 앵커 프린트 실크 타이 [Anchor-print silk tie]. (n.d.). *Salvatore Ferragamo*. Retrieved March 1, 2020 from <https://www.ferragamo.com/shop/kor/ko/men/%ED%83%80%EC%9D%B4-%EC%95%A1%EC%84%B8%EC%84%9C%EB%A6%AC/ties-man-kr/cr-4-lido-723473--9>
- 청자 양각 운룡문 [Cheongja yang-gag unlyongmun]. (n.d.). *Leeum*. Retrieved June 18, 2020, from <http://www.leeum.org/html/collection/traditional.asp>
- 체스 프린트 실크 타이 [Chess-print silk tie]. (n.d.). *Salvatore Ferragamo*. Retrieved March 17, 2020, from <https://www.ferragamo.com/shop/kor/ko/men/%ED%83%80%EC%9D%B4-%EC%95%A1%EC%84%B8%EC%84%9C%EB%A6%AC/ties-man-kr/cr-4-larry-722417--9>

Necktie Design Using Korean Traditional Artifact Pattern

Han, Jee Eun · Jung, Sung Hye⁺

Lecturer,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Inha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Inha University⁺

Abstract

Currently, the market size of the men's fashion is steadily growing, among which neckties are the representative men's accessories. Therefore, the tie market size is large worldwide. In addition, as the Korean Wave rise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interest in Korean traditional culture is also increasing. However, the market for men's accessories utilizing traditional Korean culture is not well develop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Korean Wave in the fashion industry by presenting a tie design using traditional Korean patterns so that they can be sold in duty-free shops and art galleries in line with global trends. To this end, historical consideration was made and data on Korean traditional patterns were collected. After examining the history of neckties, the trend was analyzed. When looking at the 2020 tie trends while focusing on famous brands such as Hermes and Ferragamo, the motifs of ties are usually artifact patterns. The arrangement of the motifs was various such as all-over, diagonal, mesh, and horizontal linear type. Among the collected 250 pieces of traditional artifact pattern data, 9 artifact patterns were selected. Modern tie designs were tried by including the symbolism of the motifs. Samples were made by combining more than 3 colors for each design, and 3 experts selected products that have the marketability and fit trend and show the excellence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Finally, six types were selected and 21 ties were made with the design using silk screen and jacquard. Through such a series of processes, it intended to examine the traditional patterns of Korea,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modern and high-end cultural products, and re-examine the values. It was also tried to lay the groundwork for Korean Wave fashion to exert great influence in the global market, as people in the world enjoy Korean traditional culture.

Key words : necktie design, traditional artifact pattern, fashion culture products

